

인공지능, 미디어아트와 만나다

‘제1회 양림동골목비엔날레’ 개막

마을이 미술관이다

AI 접목 이이남 작가 신작 눈길

지자체 지원없이 주민·예술인 기획

전시·아트마켓·도슨트 투어 등

5월 9일까지 다채로운 행사

전시장에 설치된 화려한 미디어아트와 어우러진 발레 공연이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단아한 한복 느낌의 의상을 입은 광주시립발레단원들은 우아한 몸짓으로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문화 향기를 전했다.

3일 광주시 남구 이이남스튜디오에서 열린 ‘제1회 양림동골목비엔날레’ 개막식 현장은 광주시의 대표 문화상품인 미디어 아트의 진수를 만나는 자리였다. 또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AI가 작가에게 어떻게 영감을 주고, 예술과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는 지 보여준 현장이기도 했다.

‘마을이 미술관이다’를 주제로 열리는 ‘제1회 양림동골목비엔날레’는 양림동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예술가들이 지자체의 지원 없이 예술이 마을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고민, 기획된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날 개막식에는 이용섭 광주시장, 김용집 광주시의장을 비롯해 한희원, 정운학 등 양림동에서 활동하는 미술인들이 참여했다.

이용섭 시장은 축사를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가 어우러지고 첨단과 전통이 공존하는 양림동은 광주의 대표 문화자산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며 “지자체의 도움없이 주민 스스로 기획하고 진행한 행사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있는 이번 골목비엔날레가 10



제1회 양림골목비엔날레 개막식이 이용섭 광주시장과 예술가, 주민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3일 이이남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회, 100회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희원 양림골목비엔날레 추진위원장은 “양림동은 수많은 예술인들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라며 “주민과 예술가가 힘을 모아 준비한 행사에 시민들을 초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양림골목비엔날레 주제전 중 하나인 이이남 작가의 ‘생명의 위로-사라지는 시간 속에서 영원한 것을 찾다’ 전시투어도 함께 열렸다.

전시에서는 이 작가가 AI를 활용해 작업한 신작 ‘생명의 경계’가 눈길을 끌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현재까지 사망한 사람과 출생한 사람의 수를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통해 빛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이 작가는 이날 자신의 이름으로 ‘인공지능예술 선언문’도 관람객들에 배포했다. 선언문은 디지털 현대사회 속에서 기술이 창작과 예술의 범주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갖는지 규정한 선언으로 ‘예술가와 인공지능의 관계’, ‘인공지능 예술가의 윤리’ 등 3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 작가는 “광주가 인공지능을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AI를 활용한 작품을 선보

여 의미가 있다”며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는 시대에 예술가는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작업을 해야하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됐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5월9일까지 계속되는 양림동골목비엔날레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전시 프로그램 ‘기획전시-영입’은 마리오세프, 양림 전통맛집, 양인제과 등 양림동에서 영업중인 16개 카페, 식당에서 이조흠·김영태·최석현·양경모·한부철·윤세영 등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는 전시다.

또 비어있는 점포에서는 실험적인 작품을 소개하는 기획전시 ‘임대전’이 열리며 한희원미술관과 10년 후 그라운드에서는 주제전시 ‘작가전’이 시민들을 만난다. 그밖에 아트마켓과 양림동 곳곳에 설치된 작품들과 마을 이야기를 듣는 도슨트 투어(유료)도 진행한다.

행사 기간 중 ‘10년후그라운드’ (광주 남구 양촌길 1)에서 방문자센터를 운영하며, 공식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프로그램 사전 신청을 할 수 있다. 문의 070-4239-5043.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김넷과에서 열리고 있는 최옥수 작가의 ‘얼굴’ 전.

나는 어떤 세월을 살았나 얼굴

김넷과, 26일까지 최옥수 사진전...문화계 명사 등 40명 담아

‘얼굴’은 한 사람의 삶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그의 회로에락이 담긴 사진을 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도 한 번 돌아보게 된다.

최옥수 사진작가는 사진 인생 5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앵글에 담았다. 서울에서 활동할 때는 연예인과 명사를 프로필 사진을 주로 촬영했고, 광주에 내려와서는 지금은 없어진 ‘금호문화’를 통해 수많은 예술인들의 얼굴을 찍어왔다. 사진의 일부는 15 차례의 ‘얼굴 테마전’을 통해 많은 사람을 만났다.

문화복합공간 김넷과(대표 박헌택)는 최옥수 작가를 초청해 오는 26일까지 ‘얼굴’전을 연다. 최 작가는 42명의 개성있는 표정과 내면의 이야기를 포착했다. 전시에서 만나는 인물은 강운·김선정·허달용 등 문화예술계 인사들도 눈에 띄지만 평범한 우리 곁의 인물들도 많다. 지금까지 전시와는 다른 점이다. 처음으로 사진작가의 피사

체가 된 사람들은 표정을 어떻게 지어야할 지, 어떤 포즈를 취해야할 지 긴장하기도 했지만 최 작가는 그들의 긴장을 풀어주며 ‘찰나의 표정’을 포착했다. 스스로 “나에게 이런 표정이, 이런 웃음이 있었나 싶은” 순간들이다.

이번 사진전은 지인 몇몇이 지인 몇몇이 프로필 사진을 부탁하면서 시작했다. 최작가가 운영하던 이틀이라 촬영하는 내내 재미있고 행복했다고. 최옥수 작가는 “자연스러운 표정을 이끌어내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오랫동안 알아왔던 이들이라 촬영하는 내내 재미있고 행복했다”고 말했다.

오픈식은 5일 오후5시 열린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3일 이이남스튜디오에서 열린 양림골목비엔날레 개막식 행사에서 광주시립발레단원들이 ‘달빛아리랑’을 선보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민주의 종’ 관광기념품으로 제작



‘민주의 종’〈사진〉이 광주의 관광기념품으로 만들어졌다.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이아이디어와 콘셉트를 제공하고 도자기마을(대표 임영주)이 제작한 ‘민주의 종’은 민주광장의 민주주의 종과 분수대 이미지를 차용했으며 녹음된 종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실감형 기념품이다.

‘민주의 종’의 반침이자 분수대 아래에 종소리가 녹음된 칩과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어 종을 들면 소

리가 나도록 했으며 휴대폰 충전기로도 충전이 돼 반 영구적이다.

‘민주의 종’은 고급형과 보급형 2종류 제작이 되었으며 금색 도장으로 제작돼 색채가 유려하고 오동나무 박스에 담아 고급스런 기념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민·관의 원활한 소통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워크숍 등 다양한 행사들을 추진해오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태양으로 물들이다...Blue, Red, Black

산수미술관 6일까지 류명숙전

섬유 디자이너 류명숙 작가 개인전이 오는 6일까지 산수미술관(광주시 동구 산수동 26-2)에서 열린다.

‘Blue, Red, Black’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류 작가는 섬유조형 작품 15점을 전시한다. 류 작가는 주변에서 흔히 만나는 자연 식물의 잎과 줄기를 면과 한지, 실크에 압화해 자외선(UV)으로 인쇄한 섬유 작품을 전시한다. 이번 작품은 천연섬유(면, 실크, 한지)의 종류에 따라 잎과 줄기 등의 이미지가 전혀 다른 느낌을 주는 게 특징으로 환경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염료의 변화가 식물의 자연스러운 형태를 보여준다.

작가는 코로나19로 지쳐가는 모두를 위해 블루, 레드, 블랙의 강렬한 색감으로 자연의 기본 형상인 식물의 잎과 줄기를 찍어내 관람객의 감성이 정화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다. 빛과 그늘의 대비로 이루어진 식물의 자연스러운 형태는 숲처럼 위안과 안식을 줄 수 있어 식물의 잎과 줄기 패턴의 작품을 디자인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조선타일라이프스타일디자인학부 교수로 재직중인 류작가는 한국조형디자인학회, 한국공예가협회, 한국공간디자인학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지금까지 5차례 섬유조형전을 개최했다.



‘Red’

장민한 산수미술관장은 “류명숙 작가의 섬유 디자인 작품은 유화나 아크릴 매체로는 느낄 수 없는 자연스러우면서도 강렬한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작품에 적힌 여러 식물의 잎과 줄기의 모습이 신비감과 더불어 카타르시스를 만든다”고 평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